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6월 8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반력 촉구 건의안 통과

유인애 의원 발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내려주시길” 강조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력을 촉구하는 안건이 강북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유인애 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안은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시행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한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하여 철회 및 교육부 장관의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건의안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지난 5월 7일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부에 ‘사상 최초 특목고 지정 취소’ 요청이라는 극약 처방에 대하여 ‘심



유인애 의원

각한 우려와 함께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며 서울외고가 강북지역 주변의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민의 학교라는 사실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한 좌절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따랐다는 주장과, 절대평가를 해서 타 학교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최근 경기도 내 모든 외국어고가 60점 이상을 얻어서 지정 연장을 받은 것도 결국 어떤 세부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는 강북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로 특목고로서의 존재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강북 지역 교육 환경을 해소하는 데 서울외고와 같은 특목고의 유지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외고가 서울시 교육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내려주시길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동북일보 4면

##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취소 결정 동의 반력 촉구안

“교육 편중 형상 완화와 열악한 강북지역 교육환경 해소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지난 5월 7일 서울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부에 ‘사상 최초 특목고 지정 취소’ 요청이라는 극약 처방을 했다.

이에 유인애 의원은 “대부분의 외국어 고등학교는 이른바 강남 4구로 일컫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나 신흥 교육특구로 불리는 노원·양천구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외고가 강남 지역이 아닌 서울의 외곽에 있는 강북지역 주변의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민의 학교라는 사실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한 좌절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을 총괄하는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결과 내용을 공개하라는 학



▲ 유인애 의원.

교 측의 요구에 대하여 타 학교의 명예 존중과 서열화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따랐다는 주장과, 절대평가를 해서 타 학교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 모두 타당하지 않는다. 최근 경기도 내 모든 외국어고가 60점 이상을 얻어서 지정 연장을 받은 것도 결국 어떤 세부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는 강북지역 주민

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로 특목고로서의 존재 의미가 매우 크며, 강남으로 집중된 서울시내 교육 편중 형상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 지역 교육 환경을 해소하는 데 서울외고와 같은 특목고의 유지는 절대적인 것으로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서울외고가 서울시 교육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내려주시길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거듭,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방황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특목고로 유지되어 지역 사회 발전은 물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외국어고 특목고 지정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을 중지하라. △ 교육부장관은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외국어고 특목고 지정 취소 동의 요구를 즉각 반력하라고 촉구 했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 강북구의회 '서울외고특목고재지정취소결정동의반려촉구건의안' 채택

강북지역 학생들 선망하는 서민의 학교 좌절감과 고통 심각 해  
구본승 의원, "청문회 불참 이해불가" 이용균, 강선경 의원도 반대



강북구의회가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와 관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건의문을 발의한 유인애 의원.

강북구의회가 지난 1일 제189회 임시회에서 유인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외고특목고재지정취소결정동의반려촉구건의안'을 찬성10, 반대3, 기권1로 채택했다.

이번 강북구의 건의문 채택은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5월 7일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교육부에 '특목고 지정 취소' 요청을 했기 때문.

서울외고는 1992년 외국어 특목고로 설립돼 현재 83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그중 강북구에 거주하는 학생 수는 75명이다.

유인애 의원은 "대부분의 외국어 고

등학교는 이른바 강남 4구로 일컫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나 신홍 교육특구로 불리는 노원, 양천구에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서울외고가 강남 지역이 아닌 서울의 외곽에 있는 강북지역 주변의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민의 학교라는 사실에 서울시 교육청의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한 좌절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결과 내용을 공개하라는 학교 측의 요구에 대해 타 학교의 명예 존중과 서

열화의 위협성을 언급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따랐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과, 절대평가를 해서 타 학교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최근 경기도 내 모든 외국어고가 60점 이상을 얻어서 지정 연장을 받은 것도 결국 어떤 세부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서울외고는 강북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로 특목고로서의 존재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강남으로 집중된 서울시내 교육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 지역 교육 환경을 해소하는데 서울외고와 같은 특목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울외고가 서울시 교육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내려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외국어고 특목고 지정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을 철회하라", "교육부장관은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외국어고 특목고 지정 취소등의 요구를 즉각 반려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 채택과 관련해 구본승, 이용균, 강선경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서울외고가 청문회 참여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현규 기자  
(donstopme@hanmail.net)